

협

회

소

식

「배합사료 영세율 전면적용 촉구」 건의문 제출

—본회, 낙농육우협회·양계협회와 공동으로

본회는 지난 6월 4일 국내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한국 낙농육우협회(회장: 김남용), 대한 양계협회(회장: 최준구)와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정부가 지난해 부업규모 농가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부업규모를 과거의 120%로 상향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전업농을 배제한 것은 정부가 국제 경쟁력제고를 위한 전업농 육성책과 상반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양축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축산생산비중 가장 부담이 큰 배합사료의 부가세영세율 전면적용이 하루빨리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 「우리나라 양돈의 향후진로와 전망」에 대한 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26일 양돈회관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양돈의 향후 진로와 전망」에 대한 양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양돈세미나는 사료원료의 폭등, 환경규제 강화, 가축질병의 만연 등으로 양돈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지금,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향후 진로 방향 모색과 전망을 조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강광파 이사가 '소비자의식은 안정성 확보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사료협회 김치영 차장이 '사료곡물의 국제동향 및 전망', 롯데

햄·우유 김태경 계장이 '국제 경쟁시대의 양돈 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하였다.

본회,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 요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본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 요령개정(안) 중 오제스키병 발생지역에서만 백신접종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5월 20일 농림수산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 따르면 돼지오제스키병 백신접종을 발생지역내의 종돈장에만 한정시켜 줄 것과 분양대상 종돈의 20%가 아닌 전 두수에 대해 간이진단 킷트법으로 검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본회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백신접종을 신고한 종돈장을 정부가 지정하는 생산자단체에 통보해서 생산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의견서 제출후 지난 6월 11일 농림수산부는 돼지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발표에서 돼지 오제스키병 발생지역내의 양돈장과 종돈장에 한해서만 백신접종을 허용하였고 백신접종 종돈장에서는 분양하는 대상의 20% 이상을 간이검사하여 전두수 음성일 때 분양하도록 하였다.

본회, SBS 방영 "돼지고기 100% 활용법" 비디오테이프 배부

본회는 회원 및 소비자들에게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요리방법을 보급하여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SBS TV가 지난 6월 4일 '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한 「돼지고기 100% 활용법」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전국의 각 지부에 배부했다.

각 지부를 통해 회원 및 소비자 교육용으로 활용되는 「돼지고기 100% 활용법」 비디오테이프

는 돼지머리, 내장, 족발, 삼겹살, 목살등의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방법과, 돼지고기 우수성과 맛 있게 먹는 요령, 요리 전문가의 돼지고기 요리 실연, 돼지고기의 의학적 효능 소개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돼지췌장이 성인병인 당뇨병에 효능이 크다는 흥문화 서울대 명예교수의 인터뷰와 돼지고기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이 올바르게 소개되어 있어 회원들의 교육은 물론 소비자들을 위한 돼지고기 소비홍보에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본회, SEW 연수생 해외파견



홍성광 대리



김현병씨

본회는 검정소의 검정돈 질병오염 최소화를 위한 격리조기이유(SEW) 사육법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9일 미국 무어맨 연구소에 2명의 연수생을 파견했다.

제1검정소의 홍성광 대리와 김현병 전 아산지부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미국 일리노이즈주에 있는 무어맨 연구소에서 2주간 격리조기이유(SEW) 사육 방법을 연수받는다.

예산지부 사무실 이전

본회 예산지부(지부장 : 홍재근)는 지난 5월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 주소 : 충남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1구 250-38

□ 전화 : (0458) 31-2746, 34-4879(전과동일)

제2검정소, 선발지수 270점 이상의 수퍼돈 3두 탄생

본회 제2검정소에서 지난 6월 11일에 실시된 검정위원회 결과 270점 이상의 선발지수를 낸 고능력돈 3두가 탄생되었다.

활천농장의 랜드레이스 수컷 276점, 동림종돈의 요크셔 수컷 2두가 각각 275, 278점의 선발지수를 기록하여 수퍼돈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수퍼돈이 탄생된 활천농장과 동림종돈은 이를 기념해 오는 7월 5일 개최되는 72차 검정돈 경매 행사시 참가자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수퍼돈 낙찰자에게는 암컷 1두씩을 기증하기로 했다.

충북도협의회의 개최

충북도협의회(협의회장 : 김철수)는 지난 6월 21일 청주 흥도 숯불갈비집에서 충북도협의회 임원, 각 지부장 및 노영한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의에서는 본회 노영한 전무가 최근 양돈동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돼지 판매시 정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도매시장 총평균가의 지율률을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70%로 자제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또한 이번 7월부터 강화되는 분뇨처리의 안건에 대해 신고규모에서 허가규모로 속하는 양돈농가가 시설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분뇨처리단속이 심해질 것이므로 협회에서 분뇨처리에 대한 지원을 하여주기를 요청했다.

경남도협의회의 개최

경남도협의회(협의회장 : 최영렬)는 지난 6월 4일 부곡로얄호텔 커피숍에서 경남도내의 각 지

부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협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전면 적용에 관한 안건 등을 토의하였다.

전라북도협의회 임시모임 개최

전라북도협의회(협의회장 : 노병도)는 지난 6월 10일 군산 양돈협회 사무실에서 10명의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모임을 가졌다.

임시모임의 안건은 전북대학교에서 6월 21, 22일 개최될 축산분야 종합학술대회에 대한 것으로 전라북도협의회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케 하는 것은 물론 협조를 아끼지 않기로 하였다.

포천지부 창립 12주년 기념식 개최



포천지부(지부장 : 강완구)는 지난 6월 14일 백노주 유원지에서 지부 창립 1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박중수 축협조합장, 이진호 포천군수, 김영주 포천군의회의장 및 양돈농가 250여명이 참석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협회의 발전과 양축가 지도에 많은 공헌을 한 이은종 포천군 축산과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한 박형환 부지부장과 이치한 증원종축 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또한 기념행사 이후 노래자랑 시간을 가져 양돈농가간의 친목도모 및 단합을 돋우었다.